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4

창세기 4-5장 - 가인과 아벨

1. 아벨의 죽음

창세기 4장과 5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당신의 시트에는 “아벨의 죽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에 관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첫 번째 죽음은 살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사망, 즉 실제 사망이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살인이었고, 살인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형을 죽인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초반부 구절에서 첫 번째 죽음은 살인에 의한 것입니다.

2.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죽음 이후 두 번째로 제기되는 제물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4절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오직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그리고 어려운 구절인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그 사람은 너희를 원하고 너희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나는 7절이 제물을 바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잘하면 너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으면, 왜 한 사람은 받아들여졌고 다른 사람은 거절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진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써 하나님이 되신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의롭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두 제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점은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아벨이 동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뜻에 있는 것임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느니라. 여기서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아벨은 어떤 종류의 희생을 드려야 하는지, 심지어는 희생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문제에 관해 어떤 지시도 주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했듯이 지난 수업에서 가죽옷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때 제사 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니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었다면 아벨은 그 지시를 따랐고 가인은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구성은 상당히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한 워필드 - 피쿨러 대 선물

귀하의 참고 문헌에 있는 BB Warfield의 토론에서 9페이지의 마지막 항목 옆에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성경의 기초"라는 에세이집 167-169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 전체는 아니지만, 그가 이 특정 본문을 논의하는 부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입니다. 여기서 한 단락 정도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희생의 기원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행간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를 더 선호하시는 여호와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간략하게 각각 표상 이론과 상징 이론 또는 선물 이론으로 알려지게 된 개념입니다. 피쿨라 이론은 죄에 대한 속죄의

필요성이나 속죄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반면, 은사 이론 또는 상징 이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피아쿨라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희생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단순히 여호와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그에게 부여된 증가에서 각각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의 제물인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반면, 아벨의 제물은 목자의 제물로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은 단지 우연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밀단보다 어린 양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확실히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으로' 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암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인의 제물이 단순한 경의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죄에 대한 감각, 즉 회개의 행위,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 용서를 구하는 탄원을 구체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Warfield의 입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손에 제물을 들고 마음에 희생에 대한 경의를 갖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손에 제물을 들고 마음에는 희생 제사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카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제사를 창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또한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악적인 제사를 제정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에서 희생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개념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굽히신 것을 나타낸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첫 번째 경우에는 희생이 죄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으며, 죄를 지은 인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죄와의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통치자에 대해 지켜야 할 올바른 공경의 태도의 표현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 4장 “더 뛰어난 희생” 에 대한 존 머레이의 접근 이제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소 추측적인 반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는 워필드가 다소 통찰력 있는 제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 다 희생을 치르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자를 제재하시고 후자는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Warfi

eld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Warfield가 Abel의 제안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한 전형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나는 Warfield의 분석을 거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신학에 관한 John Murray의 노트 이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태도의 차이는 가인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제물의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워필드는 태도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Murray는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지만 제공하는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하셨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태도가 표현되는 바로 그 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거부하셨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본문 자체가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양 떼의 첫 새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의 첫 새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글쎄, 다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실제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머레이가 “*믿음으로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머레이가 하는 일은 “더 뛰어난 희생”에 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본성상 더욱 뛰어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자체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어느 관점에나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머레이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태도의 차이는 가인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제물의 종류에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물의 태도와 형태였으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그는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느니라” 고 말하며, “더 아름다운 것” 을 제사라고 이해합니다. 그의 미발표 강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잘 지내면.” 즉, 올바른 방법으로 오면. 올바른 태도로 오신다면, 아니면 올바른 희생으로 오신다면 어느 쪽이든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창 4:7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지만 7절로 계속해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인은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영접을 받지 못할 것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죄”라는 용어는 “속죄” 또는 “속죄 제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죄가 문 앞에 놓여 있다” 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문 앞에 누워 있다” 는 표현은 마치 동물이 웅크리고 뛰어오르려는 모습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죄는 튀어나와 삼키고 지배하고 통제할 준비가 된 동물처럼 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잘 못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그의 소원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 즉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욕망은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것을 “속죄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겠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사를 드리고 죽임을 당한 짐승이 문 앞에 놓여 있느니라”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해설자 1명; Moody Press에서 발행한 창세기 주석에서 개요 시트에 있는 Atk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벨이 그것을 이용했듯 가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형적인 속죄제물은 아벨이 이미 가져온 피 흘리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속죄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앳킨슨은 “죄” 를 “속죄제가 문 앞에 놓여 있다” 고 해석하는데,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벨.

그러나 마지막 문구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문 앞의 속죄제물로 이해하고 그의 뜻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그 구절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Atkinson이 하는 일은 이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는 아벨을 가리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가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선한 일을 행하면 그와 그의 형제 사이의 관계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아벨의 소망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로서 그의 형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소원 곧 아벨의 소원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는 장자의 권리로서 그의 형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의 선행문이 분명히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시 언급하는 것 같고, 그 지점에 “아벨”을 삽입하는 것은 실제로 구절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문 앞에 놓여 주인과 통제를 하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이지만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 4:9 하나님의 응답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좋습니다. 아벨의 죽음과 함께 당신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주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하시는 동산에서의 죄 이후를 연상시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회피하거나 비난을 전가하는 대신에 당신은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오니까?” 그리고 그는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죄책감을 부인합니다.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초의 저주 - 가인의 저주 그 다음 11절에서는 “저주” 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저주입니다. 사실 그것은 저주와 처벌 사이의 다소 인위적인 구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형제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이제부터 그 힘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가 땅에서는 도망자와 유리자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이제 가인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또는 농업 활동이 어려운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을 확장하고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땅이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신, 가인에게는 수확이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일종의 청소부가 되도록 강요하고, 그가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 것입니다.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네게 힘을 주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 그러므로 너는 평생 동안 도망자와 방랑자로 지내리라.”

알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관해 질문 있으신가요?

2. 대홍수 이전의 기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기술”입니다. 즉, 홍수 전 기술입니다.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늦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는 성의 건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여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나요? 그리고 물론 이와 관련하여 “만약 아담과 하와와 아벨만 따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글썄요, 제 생각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그 자녀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질문은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기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가인은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느니라.” 그는 아내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다른 후손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5장으로 넘어가면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은 셋이라.” 우리는 셋이 130세에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과 셋이 태어난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100년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100년 뒤에는 꽤 많은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0년이면 5세대가 생길 수 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딸을 낳고, 다시 통혼하여 자녀를 낳는다면, 100년 안에 쉽게 5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쌍의 자손이 100년 안에 번식할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물론 아담이 8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읽은 것 외에도? 그래서 그는 모두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셋이 태어나기 전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차례로 다른 아이들을 낳았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th의 탄생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여러 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형 범죄와 사형 그러나 창세기 9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취하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즉 피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법과 정부에 대한 개념을 정하시고, 그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중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성향, 즉 인간의 본성 모두가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군요. 나는 당신에게 되갚아 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까지 사형을 제정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왜 여기서는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자라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어떤 확인도 없이 창세기 6장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인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주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어떤 구별되는 흔적이나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징을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즉,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벌은 그가 방황을 강요당하고

땅을 경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일곱 배의 개념이 충만함, 충만함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완전한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인을 죽인다면 일곱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가 그 금지 사항을 어긴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한 복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 같군요. 그것은 빨리 갔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 초에 2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risten Beebe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